사 설

주목받는 조계종 임시종회

해산까지 거론됐던 조계종 제11대 중앙종회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서 있다. 종회의원들의 임기는 4년으로 올해 11월 15일까지이지만 마무리단계에서 열리는 이번 제132회 임시종회에 종도들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되고 있다.

돌이켜 보면 개혁종단과 더불어 출범한 제11대 중앙종회는 우리 종도들의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개혁종회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성원미달로 여덟 번이나 유회되고, 급기야는 해산론까지 제기되었던 것이다. 개혁종단 초기의 개혁정신은 실종되었고, 종도들의 대외기관으로서의 기능도 거의 잃어버린듯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래도 조계종이 과연 한국불교를 상징하는 최대 종단임을 자랑할 수 있을까?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132회 임시종회에서는 정말 기존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된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불자들이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동안 여러차례 이월되어 온 중요한 법안의 제·개정등 종단의 시급한 안건들을 이번에 처리해야 할 것이다.

현 종회의원들은 지금까지의 파행운영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은 참회가 있어야 한다. 스스로 대표성을 포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반성속에서 이번 임시종회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다짐이 없이 종단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에 열리는 임시종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입법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년간 미루어 온 각종 종법의 개정안을 정비하여야 한다. 총무원장선거법, 교구종회법, 산중총회법, 성보보존법, 교육법, 승려법 등의 개정안을 비롯하여 총림법의 제정안이 꼭 처리되어야 한다.

한편 비판, 감시기능도 보여 주어야 한다. 개혁종단으로서 그동안 종무행정을 엄정히 분석, 평가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라는 3대 종단사업을 과연 얼마나 개혁적으로 실천했는가? 최근에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해 조사 분석하여 발표한 우리나라 종교실태를 보고 우리 불자들은 다시한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기독교 신자가 불교신도의 수를 앞지르고 있고, 조직과 신행행태등에 있어서도 불교가 상당히 뒤지는 것으로 조사, 발표되었다. 물론 지난 95년 통계청이 실시한 '인구센서스'의 종교인 조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사의 정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독교쪽의 포교가 불교에 비해 왕성하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한다. 차제에 종단 3대 사업에 대해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나 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종무행정에서 실책은 없었는가 하는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태조사자료를 보면서 포교분야에 있어서 개혁의 좌표가 제대로 설정되지 못하고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포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솔직히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11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임시종회가 될지도 모를 이번 종회에서는 포교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의 종무행정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차기 종단의 발전과제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의사진행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관계 종법의 개정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종회의원들 모두가 이번 임시종회에서는 초기의 개혁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효율적이고 사명감이 넘치는 모습을 우리 사부대중에게 보여주길 바란다. 부처님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번 종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길 다시한번 호소한다.

현대불교 구독신청 737-8881

현대만평 박구원

또다른 세상에선 잠시…

11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후보 4명 '압축'

◇월주스님

◇월탄스님

◇지선스님

◇지은스님

월주·월탄·지선·지은스님 자천타천 출마의사 표명

11월초에 열릴 제29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는 어떤 스님들이 경합을 벌일까.

일부 스님들이 벌써부터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이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전선거운동 자제, 과열 혼탁선거 지양 등을 골자로 발표된 조계종 중앙선관위의 담화문도 이미 선거가도를 향해 달리는 후보들을 의식한데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현재 후보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는 스님은 현 총무원장인 월주스님과 월탄스님(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그리고 백양사주지 지선스님, 前 통도사주지 지은스님 등.

월주스님은 아직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연초부터 월주스님의 출마 가능성은 종단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으며 주변의 스님들도 "선거 공고가 난 뒤 후보등록일 하루전에 결심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있어 출마 가능성을 높게 비추고 있다. 현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미리 출마의사를 밝히는데 따른 정치적 도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뿐 내부적으로는 차근차근 11월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월주스님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시각이다.

이에비해 백양사 주지 지선스님은 2일 한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출마의사를 공론화 했다. "4년전 이룩했던 종단의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보는 종도들의 뜻을 받들어 종단의 개혁과 사회참여를 통한 참된 불자의 길을 걷기 위해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것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선거일이 많이 남은 관계로 공식적인 출마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출마선언을 할 것"이라며 '한국불교의 위상 재정립' 등 공약사항들을 내놓기도 했다.

월탄스님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월탄스님과 주변의 스님들이 한결같이 침묵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 출마후보로 거론됐던 설정스님(조계종중앙종회의장)이 최근 "나는 선거에 나설 의향이 없다. 월탄스님이 출마한다면 도와드릴 생각이다"고 밝혀 월탄스님의 출마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비쳤다.

이미 4월초 경남지역 신문을 통해 출마의사를 밝힌 지은스님은 최근 교계 신문에도 공식적인 출마의사를 밝혔다. 지은스님은 "지난 4월3일 통도사에서 열린 보살계산림에서 증사스님들의 만장일치로 총무원장 후보로 추대됐음"을 강조하며 "힘있는 종단, 생산적인 종단, 화합하는 종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직 구체적인 선거양상은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일부 스님들이 이미 공식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어 뜻을 둔 스님들의 행보는 갈수록 분주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구본사 주지선거를 지켜본 많은 불자들은 보다 승가다운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조계종 **통일법요집 발간**

스님-신도용 구분…3년만에 결실

〈통일법요집〉이 편찬작업 3년만에 발간됐다. 조계종포교원(원장 성타)은 종단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통일법요집〉을 펴내고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출판고불식을 봉행했다.

스님용과 신도용으로 구분해 발간된 〈통일법요집〉은 예경의식과 헌공·재일의식, 특별의식, 찬불가 등 신앙활동에 필요한 의식을 담아 각각 608쪽 596쪽으로 구성됐다. 스님용에는 일용의식과 상용의식, 특별의식, 전문의식 등이 별도로 추가됐다.

포교원은 95년 3월 '불교의식의 체계화, 현대화, 한글화를 통한 불교발전 및 포교활성화를 기한다'는 취지로 편찬사업을 시작, 8차례의 준비 세미나와 집필, 시안(試案)의 현장 검토, 조계종 계단위원 고산스님의 감수 등의 과정을 거쳐 3년여만에 결실을 맺었다.

〈통일법요집〉 편찬작업에는 월운스님이 상임편찬위원장으로, 연구 및 집필위원으로 원명 지홍 법경 인묵 화암스님과 진철승 정부기 이기선씨가 참여했다.

〈통일법요집〉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명절 관련 의례 및 생활의례의 기본적인 전형을 제시하고, 사찰마다 조금씩 다른 각종 의식의 정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법요집은 사찰 또는 단체마다 별도로 제작해 사용해왔다.

정성운 기자
〈swjung@buddhapia.com〉

행자교육원 입방자 조계종 25일 사전교육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은 25일 오전 10시~5시까지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 대상자 사전교육'을 갖는다.

남행자 32명 여행자 24명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교육부장 향적스님의 특강, 신체검사, 사시불공습의 등으로 진행될 예정.

직할교구 행자 가운데 이번 교육 불참자는 제15기 행자교육원 입방자격을 상실한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인천에 포교거점도량 세운다

조계종-사암련 운영…주월동에 대지 매입

인천지역에 포교 거점도량이 마련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인천지역 사암연합회와 공동으로 포교거점 도량을 설립키로 했다. 종단과 지역사암연합회가 공동으로 포교거점 도량을 설립키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따라 조계종 총무원은 인천시 남동구 주월동에 2백13평의 대지를 5억여원에 매입키로 하고 최근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총무원은 거점도량을 인천지역의 불교 교육과 문화포교 등 다양한 포교공간으로 활용한다는 방침 아래 사찰 건립과 운영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본사주지 중징계 '설왕설래'

실천승가회등 5개단체 "납득할 수 없다"

조계종 "초심호계위 징계 적법한 절차"

조계종 초심호계위원회가 지난달 4명의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2명의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에게 제적등의 징계를 결의한 것〈본지 176호 2면참조〉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여의도불교문화센터의 건립 중단사태〈본지 175호 2면참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의장 청화),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의장 진관 석담),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 한상범),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회장 법타), 동국대석림동문회(회장 혜총)등 5개단체 대표들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청화스님, 진관스님, 법안스님, 도관스님 등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5개단체는 총무원에 대해 △현시기에 종단의 중진스님들에 대해서 중징계를 할 수 밖에 없었는지 전 종도들에게 해명 △본사주지 스님들에 대한 과도한 징계조치의 전면 재검토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 공개 등을 요구했다. 중앙종회에 대해서도 "특별조사기구를 만들어 여의도불교문화센터 문제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의장 지원)도 9일 총무원에 여의도불교문화센터 관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을 촉구했다.

이와관련 조계종 총무원은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5개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호법부장 영배스님은 간담회를 통해 "교구본사 주지스님등에 대한 초심호계원의 징계는 그동안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기위해 회부 대기중인 사안이어서 임기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의도불교문화센터와 관련 능관스님은 "7월에 문화센터를 개원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5월22일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의 징계가 결의된 불국사주지 설조스님도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징계에 대한 항변'을 밝히고 이를 총무원에 공개 질의했다. 설조스님은 현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호적과 수행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총무원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이 없으므로 이제라도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연태 기자

호남 본말사주지 연수 특강·토론등 활기

조계종 교육원(원장 암도)이 주최하는 호남지역 본말사 주지 연수회가 10~11일 지리산 프라자호텔에서 1백63명의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21세기 수행자상과 시대적 역할·IMF시대 불교계 과제와 역할·사찰에서 주지역할과 지도력 제고방안 등에 대한 특강과 토론이 진행됐다. 이은자 기자

총무원의 징계조치에 대한 교구본사주지모임의 입장

우리 승가 생활의 본질은 화합입니다. 계율을 지키는 것도, 종헌종법을 지키는 것도, 청정수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와같은 화합을 바탕으로 해서 사찰운영도, 중생제도와 종단개혁도 이루어져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서 우리 종단은 또다시 각 단위별로 불화와 갈등 구조가 형성되더니 급기야 문중(도)간에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에 있었던 교구본사 주지 등 여러명에 대한 과중한 징계가 그 한 가지 예일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징계 사유가 있으나 그 가운데 납득할 수 없는 점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령 분담금을 내지 않는다고 본사주지를 제적한다거나 오래전에 발생한 성보도난의 책임을 묻는다며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사찰주지에 대해 승려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제적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4~5년 이라는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이번에 취한 징계조치, 그것도 성보를 도난당한 사찰주지들이 더 있는데도 누락시키면서까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를 한 처사는 이해할 수 없으며 주지의 관리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 성보 전체가 완전히 소실된 과거의 책임을 상기한다면 이같은 사실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건을 두고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은 같은 직책의 종무책임자로서 같은 종단의 수행도반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 총무원에서 징계조치한 성보 도난 사찰의 본사주지 및 중진 스님들에 대해 4~5년의 세월이 경과한 지금에 와서 중징계한 처사는 옳지 못하다고 사료되니 재고하여 주시기 앙망합니다.
- 이로 인해 또다시 종단과 종도와 문중간에 불화가 심화돼 어려운 국가현실 속에서 불교계의 누추한 모습을 나타내어 국민과 종도들에게 불교계 위상을 실추시키는 모든 책임은 총무원에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현 총무원의 4년간의 종무행정상 나타난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도 우리 교구본사 주지들은 화합을 위해 인내하고 있음을 상기 하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2년 6월 12일

민족문화수호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 모임